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특수전도주일 (마약퇴치의 날, 6.26)

오늘 주일예배는 특수전도주일로 지킵니다.

3.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025년 7월 1일(화) 첫날맞이 월삭예배가 새벽 5:30에 있습니다.

4. 구역예배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임명순 사모님 댁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1:40 출발
(다음 모임 : 박제연 집사님 가정 / 교회에서 예배 후 가정방문)

5. 경기서지방회 지방화장 순회예배 (수원감찰)

2025년 7월 3일(목) 오전 7:30 세한교회에서 있습니다.

6. 주일 오후 소그룹 교제

오늘 오후예배 소그룹 교제는 <토된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도는 중고등부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7. 이사 - 이상민 형제

이상민 형제님이 6월 28일 이사를 했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경제적 지원 및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8.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근복무), 이다남(노환), 박연대(노환), 임명순(손발목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수면),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공항장애, 믿음), 이광근(홈스쿨), 박태성(청력), 강선주(사업, 가족) 최귀순(백내장 수술 회복, 관절) 윤라결(아들건강), 김민철 목사(유명한교회, 폐암, 면역증대 되어 항암치료 받을 수 있도록) 임진관 권사(안양샘병원 중환자실-치유와 회복)

9. 2025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6.8 ~ 음 -6.7)

07/07(월)-이판순 성도(-6.13) 07/14(월)-박창균 성도 07/19(목)-박제연 집사
07/19(목)-문효은 자매 07/21(월)-노강민 학생 07/23(수)-문동진 권사(-6.29)

애국과 평화의 달

행사계획

| 날짜 | 행사내용 |
|-------|------------------------------------|
| 06/29 | 특수전도주일 신교헌신예배(마약퇴치의날6.26) |
| 07/01 |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
| 07/03 | 산상기도회 (인양 갈매산기도원) 지방화장순회예배 수원감찰 |
| 07/06 |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
| 07/13 | 교회교육주일 / 라벨이기도사작 |
| 07/20 | 청소년헌신예배(청소년부) |
| 07/27 |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
| 28~30 |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드림캠프) 팬택 다인타워호텔 |
| 08/01 |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
| 08/03 | 청소년청년 헌신의 주일 |
| 08/10 | 해방기념주일 |

주일 사랑 운영

| 요일 | 운행안내 |
|----|---|
| 주일 | 교회출발(9:45) ▶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
| 귀가 |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
| 평일 |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

예배안내

| 구분 | 분시 | 간 |
|---------------------|-----------|----------|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11:00 |
| 주일오후예배 | 2부 | 낮 1:00 |
| 주일어린이예배 | | 낮 1:00 |
| 토요학생부예배 | | 오후 4:00 |
| 주일청년부예배 | | 낮 1:30 |
| 수요저녁기도회 | 저녁 | 7:30 |
| 금요성령기도회 | 저녁 | 7:30 |
| 새벽기도회(월~토) | 새벽 | 5:30 |
| 화요중보기도회 | 낮 | 2:00 |
| 목요구역예배 | 낮 | 2:00 |
| Who made the world? | (상담 후 진행) | |
| Thinkwise(마인드맵) | (상담 후 진행) | |
| 쉐마학당 | (상담 후 진행) | |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 |
|------|--------|
| 6/29 | 임명숙 집사 |
| 7/06 | 김혜숙 권사 |
| 7/13 | 정현숙 권사 |
| 7/20 | 한희락 학생 |
| 7/27 | 박제연 집사 |
| 8/03 | 임명자 집사 |
| 8/10 | 임명숙 집사 |



주사랑 8권 26호 | 2025년 6월 29일
창립 2017.11.25 | 생양침후세배주일/특수전도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특수전도주일 / 마약퇴치의 날) 인도:집례자

- ※ 목 도 호세아 6:6 인 도 자
- ※ 찬 송 가 찬 15장 다 같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시교독 No.19 시편 32편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286장 다 같 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종교동부 부장)
- ※ 성경봉독 로마서 8:9~13 (신 249) 임명숙 집사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중독과 은혜 담임목사
- 십 계 명 출 20:1~17 / 마 22:37~40 인도자/회중
- 봉헌찬송 찬 289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아 어린이)
-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언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문도잔임명자 장사라 한은총 한희락 / 오동영 임명숙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 감사헌금 : 박태성 이광근 박제연 장사라 전복순 임명순(생일) 한승훈 임명순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 선교헌금 : 김혜숙 / 조형재(수원순복음)
- 전도헌금 : 이옥성 장제규 장제경 최란희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 후원헌금 : 경기서지방회 인양중앙교회 세한교회
- 성 미 : 조형재(수원순복음)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주일 기관별 소그룹

오후 1:00 임명숙 사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이사야 9:1~7 (구 977)
말씀제목 약속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갈라디아 5:13-26 (신 307)
말씀제목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아기를 관찰
성경봉독 열왕기하 4:18-37 (구 564)
대표기도 아기를 관찰
말씀제목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3)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기복음 9:57-62 (신 109)
말씀제목 나를 따르라

새벽 기도회

새벽5:30 로마서강해(월~금)
29일(일) 미 4:1-5 하나님의 평화
30일(월) 롬 10:16-21 말씀과 믿음과 믿음
1월(화) 롬 11:1-12 이스라엘의 남은 자
2일(수) 롬 11:13-24 야방인의 구원
3일(목) 롬 11:25-32 이스라엘의 구원
4일(금) 롬 11:33-36 하나님의 지혜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기선교(오주교훈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타 기관 선교

오른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 ⑥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는데, 코레스와 캄바세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다시스다 등의 역대 왕조를 이어 흥왕하겠지만, 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새롭게 등장할 나라를 통해 멸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 11:2~4)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 ⑦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으로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두 백성은 어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단 12:1~3)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을 받는 자도 있겠고 ()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⑧ 마지막 환상을 통해 나타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해석한 기간은 얼마인가요?(단 12:6~7)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를 지나서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 ⑨ 모든 성도가 미혹과 꾀박과 유린을 당할 때가 오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나요? (단 12:10~13)
많은 사람이 ()을 받아 스스로 ()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재배해 드립니다)

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여 패망한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했다고 고백하나요?(단 9:18~19)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② 하나님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응답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 말했나요?(단 9:23) 곧 내가 ()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③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때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알게 하셨는데, 그 기간은 무엇인가요?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④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중에 천사가 밝혀준 다니엘이 금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단 10: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졌음에도 세 이레동안 응답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단 9:13, 19~20)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어느나 이제 내가 돌아가서 ()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가 이를 것이라 (※ 단. 이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어둠의 영적 존재를 말함)

신앙의 향기 - "과일 가게 전도법"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과일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의 교인이 자주 찾아와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분에게는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 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이 많아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 가지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손님이 와서 그 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이 있는 것으로 골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예요?"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자월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단순하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동등 된 단어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을 위한 <자기희생>의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대속물>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인 우리들의 짙 값인 죽음을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평신도의 영적의무를 예배 출석이나 헌금을 내는 정도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표현을 일요일에만 국한시키고, 주일 낮에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일요일의 안식'만을 찾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날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선교와 봉사를 통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일겠지만,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지상의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서 | 예배진행 | 인도자 | BC | 오늘 본문의 연표 | Bible |
|------|------------------|--------|-----|-------------------|------------|
| 사도신경 | | 다 같이 | 850 | 아하시아의 배반의 조짐 | 왕하 1:1~12 |
| 찬송가 | 찬 91장 | 다 같이 | 852 |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죽음 | 왕하 1:13~18 |
| 대표기도 | | 이가를 관찰 | | 엘리아 승천과 엘리아 승계 | 왕하 2:1~14 |
| 성경봉독 | 왕하 4:18~37 | 윤독 | | 엘리아의 사역 시작 | 왕하 2:15~25 |
| 말씀인도 |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3) | 말은이 | 852 |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 왕하 3:1~12 |
| 합심기도 | | 다 같이 | | 자식을 잃게 된 여인을 도움 | 왕하 4:1~7 |
| 헌금기도 | 찬 380장 | 말은이 | | 자식 없는 여인을 도움 | 왕하 4:8~37 |
| 주기도문 | | 다 같이 | | 독성이 강한 우물을 고쳐심 | 왕하 4:38~44 |

■ 들어가는 말

선지자 엘리사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후, 여호람의 통치 초기부터(3장) 말기까지(9장) 엘리사의 다섯 가지 이적에 대한 기사 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얻은 수넬 여인의 아들이 오륙 세 전도 자랐을 때(18), 아이가 아버지 곁에서 ‘내 머리아 내 머리아하며 통증을 호소합니다(19). 아이의 아버지는 사환에게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지시하지만(19), 수넬 여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고 맙니다(20). 수넬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21). 수넬 여인은 죽은 아들의 처사를 위해 엘리사를 찾아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22~24). 엘리사가 멀리서 수넬 여인을 발견하자 시중 게하시를 보내서 수넬 여인과 남편과 아이에 평안을 물어보자, 여인은 모두가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26). 여인이 갈멜산에 이르러 엘리야에게 나아가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려 하자 게하시가 그녀를 제지합니다(27).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수넬 여인의 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을 밝힙니다(27). 이제야 여인은 자신에게 아들을 갖도록 기도한 엘리사를 원망합니다(28). 엘리사가 게하시의 허리를 묶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눔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갈 것을 지시했고, 자신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지시합니다(29). 앞서 도착한 게하시의 아이 소생 이적의 실패를 보고받습니다(31). 이후 도착한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음을 발견합니다(32). 엘리사가 문을 닫고 수넬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33).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가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포개고 엎드립니다(34). 아이의 체온이 점점 올라가고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35). 수넬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감사하고 아이를 안고 나갑니다(37).

죽었던 아들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는 선지자를 바라보는 여인의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선지자의 믿음의 합력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히 11: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히 11:6). 은혜는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해 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었던 수넬 여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수넬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눕히고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요청합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촌각을 다투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게하시의 물음에 ‘평안’으로 인사하는 그녀에게겐 현실이 알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모습에서 그 믿음과 소망이 드러납니다.

둘째, 믿음으로 용기를 붙드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를 만난 여인은 서슴없이 엘리사의 발을 안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로 여인의 심경을 묘사했지만, 이는 여인의 불신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니다. 애초에 불신이었다면 엘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게하시의 만류를 개의치 않고 엘리사를 끝까지 찾은 것은 애통함으로 포장된 믿음의 절규였습니다. 수넬 여인은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어 희망과 기쁨을 갖게 하고선 이제 와 무책임하게 죽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며 비통함을 토로합니다. 아들을 얻게 했으니 죽음도 책임지라는 말 속에는 다시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넬 여인은 슬픔을 쏟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고집을 붙드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의 지팡이를 들려보내 아이를 치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직접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께 딸의 치료를 간청하던 시몬의 여인을 보는 듯 합니다(마 15:21~28). 단호하게 매달리는 여인을 보고 엘리사는 결국 길을 나섭니다.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수비게 물려서지 않는 것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생명을 붙드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게하시가 가져간 엘리사의 지팡이는 효험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는 그것을 든 자의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올려 놓는 행동을 재차 하여 아이를 살립니다. 선지자를 찾아 붙든 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선지자의 믿음이 해를 불러왔습니다. 주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며 탄식했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 결론

은혜는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팡이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올려놓는 행동을 재차 한 후에야 아이가 살아납니다. 믿음이 생명을 불러왔습니다. 선지자를 붙든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선지자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 어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